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9.14.-9.19

연대기순 성경 통독 37주 차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37~48장, 요엘서, 다니엘 1~2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다 읽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시작해 생명의 강을 지나, 새 성읍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겔 48:35). 8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영광이 43장에서 동문으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금요일에 읽는 요엘서를 그날 밤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펴고(옷이 아니라 마음을, 욜 2:12-17), 수요일에 읽는 영광의 귀환을 주일 강단에서 다시 살펴봅니다(다시 돌아오는 영광, 겔 43:1-7). 토요일에는 바벨론 궁정의 다니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른 뼈 같은 메마른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다시 가슴이 뛰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눈에

9월 14일 (월) ·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9월 15일 (화) · 보고 듣고 마음에 두라

9월 16일 (수) · 영광이 돌아오다

9월 17일 (목) ·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월 18일 (금) ·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9월 19일 (토) · 손대지 아니한 돌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9월 14일 (월) | 에스겔 37~39장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37:3).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맞붙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어 일어섰습니다(37:10). 이 뼈들은 소망이 없어졌다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습니다(37:11). 두 막대기가 하나로 붙는 표징이 이어졌고, 38~39장은 곡의 침략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골짜기의 뼈들은 죽어 가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앓는 백성이 아니라 죽은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살리는 길은 둘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전하기만 했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골짜기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고, 자기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 2:5). 우리도 앓던 환자가 아니라 죽은 시체였는데, 그분이 부르시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늘을 걷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4일 (월) ·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5일 (화) | 에스겔 40~42장

보고 듣고 마음에 두라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십사 년 되던 해에 에스겔은 환상 중에 높은 산에서 새 성전을 보았습니다(40:1-2). 빛나는 사람이 측량 장대로 문과 뜰과 방들을 재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들으며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에 전심으로 주목하라"(40:4). 세 장 내내 치수가 이어지는데, 높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이 환상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지으라는 말씀이 없고, 높이 치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삽을 들라 하지 않으시고 눈을 들라 하셨습니다. 보라, 들으라, 마음에 두라.

십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끝에 온전한 성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입을 다무신 동안에도 손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 하셨고(요 2:21),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도면을 예수님이 몸으로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집의 산 돌이 되었습니다(벧전 2:5).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짓고 계신 집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5일 (화) · 보고 듣고 마음에 두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6일 (수) | 에스겔 43~45장

영광이 돌아오다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에스겔이 동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습니다. 많은 물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땅이 빛났습니다(43:2). 성전을 떠날 때 보았던 바로 그 영광이었습니다(43:3).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와 성전에 가득 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43:7). 제단은 성전 뜰 한가운데 놓였습니다(43:13).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8장에서 떠난 영광이 43장에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머뭇거렸는데 돌아올 때는 곧장 들어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나신 발걸음이 아니었기에 돌아오고 싶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온 영광 한가운데 제단이 놓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사시려면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임재는 언제나 속죄 위에 돌아옵니다.

그 영광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요 1:14). 그리고 그 영광이 제단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마 27:51), 영광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요 17:24). 이번 주일 이 본문 앞에 섭니다. 영광을 맞을 자리를 오늘부터 비우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6일 (수) · 영광이 돌아오다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7일 (목) | 에스겔 46~47장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 나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천 척을 재니 발목에 차고, 다시 천 척에 무릎, 다시 허리, 다시 재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47:3-5).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47:9). 그 잎은 약이 되었습니다(47:12).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강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발목을 적시더니 끝내 나를 안고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강을 건너지만 나중에는 강이 나를 데려갑니다.

이 강이 흘러간 곳은 사해입니다. 소금에 절어 죽은 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뛰놉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말씀은, 닿지 못할 만큼 죽은 자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강이 어디서 터졌는지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38).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요 19:34). 참 성전이신 그분의 몸에서 강이 터져 성령으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오늘 내게서 흘러나간 생수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7일 (목) ·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8일 (금) | 에스겔 48장; 요엘 1~3장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에스겔서가 성읍의 새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48:35). 요엘서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갉아먹은 재앙에서 시작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2:13).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2:28) 약속하셨습니다.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옷을 찢으면 사람들이 봅니다.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만 보십니다. 옷은 새 옷을 입으면 그만이지만,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손수 꿰매 주셔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근거는 우리 결심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2:13). 돌아갈 분이 그런 분이기에 반갑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엘이 외친 여호와의 날, 해가 어두워지는 그 날이 골고다에 먼저 왔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날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 본문을 폈습니다(행 2:16). 몸이 찢기신 분이 살아나셔서 찢어진 마음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메뚜기가 먹은 햇수까지 갚아 주십니다(2:25). 오늘 밤 금요기도회, 옷이 아니라 마음을 들고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8일 (금) ·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9월 19일 (토) | 다니엘 1~2장

손대지 아니한 돌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바벨론 궁정에 끌려간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1:8).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조차 말하지 않고 해석을 요구하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고 밤에 응답을 받았습니다(2:19). 꿈은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큰 신상이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수었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2:34-35).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2:44).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금 머리에서 시작해 제국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제국을 끝내는 힘은 돌 하나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손이 대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 제국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시작해서, 사람이 막을 수 없이 자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식탁을 마다하며 이미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혹자의 떡을 마다하셨습니다.

그 돌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나셨고,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눅 20:17).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왕궁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죽음 덕에 우리가 왕의 궁에서 영원히 삽니다. 내일 주일, 돌아오시는 영광 앞에 서며, 이 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9월 19일 (토) · 손대지 아니한 돌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